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작성자 : 김준동 무역투자정책실 선임연구위원

【jdkim@kiep.go.kr, ☎ 3460-1129】

강준구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위원

【jgkang@kiep.go.kr, ☎3460-1058】

主要内容

- ▣ 1996년 외국의 대형할인점 진출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생산성 측면에서 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 전체 종사자 일인당 유통마진으로 산정한 노동생산성이 1991년 17.3백만 원에서 2000년 24.1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자료의 제약으로 엄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대외개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합소매업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시장개방의 결과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개연성을 보여줌.
- ▣ 한편, 2002년 7~8월 대구지역의 중소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 371개 중 34.5%인 128개 업체만이 경영상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단, 경영상 변화에 소요된 비용이 많을수록 매출액이 개선된 업체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나타났음. 즉, 비용 없이 경영상 변화를 시도한 80개의 업체에서 매출액이 개선된 업체는 단지 9개 업체(11.3%)에 불과하였으나, 500만 원 이하의 비용이 소요된 업체의 경우 총 24개 업체 중 9개 업체(37.5%), 500~1000만원의 비용을 소요한 업체의 경우 총 13개 업체 중 6개 업체(46.2%),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소요한 업체의 경우 총 11개 업체 중 8개 업체(72.7%)가 매출액이 개선되는 등 경영 변화를 위해 소요된 비용이 많을수록 매출액이 개선된 업체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 향후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시장개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보호주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1.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배경

- 국내 유통시장은 UR협상 결과로 1996년 외국의 대형할인점이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급격히 증가하였음.
 - 본격적인 유통시장 개방이전인 1991년 동 분야에 대한 FDI는 4.5백만 달러로 총 FDI 중 0.4%에 불과하였으며, 1995년에도 FDI 규모는 58.1백만 달러로, 총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그쳤음. 그러나 1996년에는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3.3억 달러, 총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에 이르는 등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1998년과 1999년에는 5억 달러를 초과하였음.
 - 이러한 외국인의 유통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특히 대형할인점에 집중되었는데, 1996년 이후 외국대형할인점의 점포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2년 말 현재 66개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대외개방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1996년 이전인 1993년부터 국내 소매업체들에게 대형 매장의 설립을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면서 실질적인 시장개방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1993년을 기점으로 국내기업의 대형할인점 설립이 시작되었으며, 1996년에는 29개의 점포가 개점함으로써 외국계 대형할인점의 경쟁압력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이 빠르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이,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업체가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여타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특히, 많은 외국의 대형할인점이 국내에 진출한 현재에도 국내 할인점 시장에서 국내업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볼 때, 시장개방과 그에 대비한 규제완화는 국내업체들에게 대형할인점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됨.

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 유통시장 개방 이후 생산성 측면에서 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 전체 종사자 일인당 유통마진으로 산정한 노동생산성이 1991년 17.3백만원에서 2000년 24.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아직 충분한 시계열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엄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이나 비식용신품일반소매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대외개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합소매업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장개방의 결과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개연성이 있음.¹⁾

- 한편, 종사자 일인당 유통마진이 증가한 반면, 종합소매업 분야의 전체 유통마진율은 1991년 0.30%에서 1998년 0.1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유통시장 개방의 결과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유통서비스의 생산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유통시장의 개방은 그동안 제조업체가 장악했던 폐쇄적인 시장구조를 유통업체가 가격결정력을 갖도록 바꾸는 구조개혁의 계기가 되었음.

- 이에 따라 제조업체마다 중복적으로 유통망을 거느리던 비효율이 완화

1) 종합소매업의 경우 종사자당 유통마진은 1991년 23.5백만 원에서 1998년 39.7백만 원으로, 매장 단위 면적당 매출액은 1.79백만 원에서 1998년 3.13백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되었고, 끼워 팔기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여지도 줄어들게 되었음.

- 아울러,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정착, PB 상품 개발의 활성화 등 유통시장의 구조변화는 소매가격 하락을 통해 소비자물가 안정에 상당히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됨.

3.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

□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 할인점의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경쟁에서 열위에 놓인 중소규모 소매업체의 퇴출이 증가하게 되었음.

- 이는 기존에 진행되어 온 영세 소매업체의 퇴출과 함께 고용감소를 유발하여, 1995년을 기점으로 도소매업의 고용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문제는 이들 중소소매업체들이 시장개방이라는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인데, 2002년 7~8월 대구지역의 중소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 371개 중 34.5%인 128개 업체만이 경영상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다수 업체들은 취급품목 전환, 영업시간 변경, 매장 리모델링 등 대형 할인점 설립에 대응한 경영상의 변화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영상 변화를 시도한 업체들 중 25% 정도는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영상 변화에 소요된 비용이 많을수록 매출액이 개선된 업체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나타났음.

- 즉, 비용 없이 경영상 변화를 시도한 80개의 업체에서 매출액이 개선된 업체는 단지 9개 업체(11.3%)에 불과하였음. 그러나 500만 원 이하의 비용이 소요된 업체의 경우 총 24개 업체 중 9개 업체(37.5%)가 매출액이 개선되었으며, 500~1000만원의 비용을 소요한 업체의 경우 총 13개 업체 중 6개 업체(46.2%),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소요한 업체의 경우 총 11개 업체 중 8개 업체(72.7%)가 매출액이 개선되는 등 경영 변화를 위해 소요된 비용이 많을수록 매출액이 개선된 업체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4. 향후 정책적 과제

□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중소소매업체들이 경영상 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자 가장 효과적인 지원정책은 자금조달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경영상 변화에 소요된 비용이 많을수록 매출액이 개선된 업체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상품구성과 재고관리를 포함하여 마케팅 기법까지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공동물류 및 공동구매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며,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활동 등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의 다양한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에도 결국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응 지원 정책의 핵심은 자금지원으로 귀결됨.

□ 이는 다른 분야의 시장개방에도 마찬가지로 일 것임.

- 농업의 경우 농업 외에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 힘든 고령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소득보조가 필요함.

- 교육서비스의 경우도 국내 사립대학의 부실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우수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함.
- 보건의료의 시장개방에는 영리법인의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관련되어 있는데, 공공의료가 부실한 우리의 현 상황에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
- 영화로 대변되는 시청각서비스의 경우는 국산영화 제작이나 상영기회 확보에 대한 지원책을 경쟁정책상의 대안과 함께 보완적으로 마련하여 영화계의 동의를 유도해야 함.

□ 따라서 향후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이들 분야의 시장개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보호주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와 같은 제도는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임. 즉, 무역협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유화의 시행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기업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미국의 TAA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임.

□ 단, 재정적 지원이 오히려 시장개방의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즉, 이러한 제도는 이를 통해 지원을 받는 수혜대상에 대해 적절한 요건과 자격을 부과함으로써 시장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동시에, 적응이 필요한 대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원활한 시장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